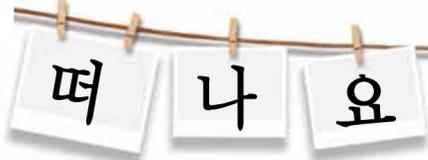




문화공감 2015 <3> 예술더하기여행



문화와 동행하는 도심 여행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출신들 진행 '도시樂 여행-미대오빠 어디가' 등 광주·전남 음악·그림 등 만나는 여정 대인시장 '웰컴센터' 거점 본격 투어

‘여러분의 여행길에 광주·전남의 문화예술을 더해드립니다.’ 지역의 문화를 느끼는 여행이 인기다. 전주 한옥 마을을 체험하기도 하고, 대구 ‘김광석의 거리’를 걸으면서 그 시절 향수를 떠올리기도 한다.

지난 28일 ‘예술더하기여행’이 진행한 투어 프로그램 ‘광주 도시樂 여행-미대오빠 어디가?’에 참여한 20여 명도 광주·전남의 도시를 걸으면서 곳곳에 보석처럼 숨어 있는 ‘맛’과 ‘멋’, ‘문화’를 느끼고 싶어서 투어에 참여했다. 코레일 ‘내일로’를 통해 광주를 찾은 이들은 이들도 있었고, 지역에 살면서 광주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일반인과 고등학생 등도 있었다.

이날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있는 광주 폴리인 ‘광주 사랑방’에서 만난 이들은 ‘예술더하기여행’의 안내를 받으면서 갤러리D, 무등갤러리 등이 있는 예술의 거리를 걸었고, 대인예술시장에서 푸짐한 순대 국밥과 서비스로 나오는 순대로 배를 채웠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대인예술시장 입주 작가들의 협동조합 ‘다다’가 운영하는 ‘다다 갤러리’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도심 속 사찰인 원각사를 둘러봤다. 또 광주비엔날레재단 ‘폴리 해설사’를 따라 광주 지하철 폴리인 ‘탐구자의 전철’을 탑승하고 기역의 상사, 99칸, 투표, 유동성 조절 등 폴리를 체험했다. 이들은 금남공원 옆 아하갤러리에서 진행된 예술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날 여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서울에서 코레일 ‘내일로’를 이용해 광주를 찾은 조진호(22)씨는 “너무 만족스러웠다”며 “도심 곳곳에 문화가 잘 녹아 있어 예술을 잘 몰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밥을 시키면 순대를 무제한으로 주는 영광식당은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이 가득한 식당이었다”고 덧붙였다. 윤민이(여·28)씨는 “광주에 살면서도 마땅할 갈 곳이



‘예술더하기여행’의 김진영(29·왼쪽부터)·전아름(27)·기재홍(28)·정지아(29)씨.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타지에서 친구들이 오면 이런 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다”며 “함께 걸으면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특히 좋았다”고 전했다.

‘예술더하기여행’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출신인 정지아(여·29)·김진영(여·29)·기재홍(28)·전아름(여·27)씨가 만든 작은 여행사다. 이들은 광주·전남의 문화예술 자원들을 활용한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다는 지난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강신겸 교수 지도 아래 ‘예술더하기여행’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해 3월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3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이어 10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투어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코스는 사전 조사, 동선, 전문가 멘토링 등을 받아 직접 견고, 체험하면서 선정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투어는 서울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일정이었다.

‘예술더하기여행’의 투어 프로그램은 당일, 1박2일, 2박3일 등 일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무등산을 따라 걸으면서 의재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등지에서 도자 체험을 하는 코스 ▲광주시립미술관, 함평 잠원미술관, 캠핑, 산내리 투어 등으로 진행되는 코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광주 폴리, 무등산 산책, 대인예술시장을 체험하는 코스 등이 있다.

‘예술더하기여행’은 오는 3월 함평 잠원미술관 등지를 중심으로 마지막 시범 운영 투어를 마무리하고, 대인예술시장 내 ‘웰컴센터’를 거점으로 본격적인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재홍씨는 “광주·전남의 시, 음악, 그림 등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 여행의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목요일연국악한마당 ‘하늘땅’으로 출발

빛고을국악전수관, 2월 5일 올 첫 공연

광주 서구(청장 임우진) 빛고을국악전수관이 2015년 ‘목요일연국악한마당’을 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03년부터 진행해온 목요일연국악공연은 12년간 439회 공연을 진행했고, 5만7000여명이 관람하는 등 광주를 대표하는 국악 공연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올해 목요일연국악한마당은 2월부터 12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42회 상설운영될 예정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오는 5일 오후 7시 열리는 2015년 목요일연국악한마당 개막 공연에는 풍물놀이패 ‘하늘땅’을 초청했다.

‘하늘땅’은 이날 공연에서 축원덕담 ‘비나리’를 시작으로 진도북춤, 살풀이춤, 모듬북놀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비나리’는 2015년 새해의 성공적 운영과 모든 사람들의 무병장수와 평안, 그리고 개막공연이 성황리에 마쳐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소원굿을 의미하는 뜻깊은 공연이다.

이어 12일에는 전통연희놀이연구소 초청 ‘강령탈춤’, 26일에는 (사)풍류회 ‘죽선방’ 초청 공연을 갖는 등 전통과 퓨전으로 아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현승 시 한지에 새겨 드려요 나눔로또 31일 무료 배포

‘김현승 시인의 시 받아주세요.’

올해 40주기를 맞은 광주 출신 김현승 시인의 작품을 금속활자 인쇄 방식으로 1000년을 간다는 전통 한지에 새겨 나눠주는 ‘시(詩) 나눔 행사’가 열린다.

북권통합수탁 사업자 나눔로또(대표 양원근)는 김시인의 대표작 ‘가을의 기도’와 ‘플라타너스’를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를 갖는다. 31일 북구 중흥동 ‘북권나라’, 남구 주월동 ‘돼지국밥’, 2월 7일 여수시 학동 ‘북권나라’.

이번에 나눠주는 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속 활판 인쇄 방식을 이어오고 있는 경기 파주 활판공방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했다. 납을 녹이고 시구 하나씩 활자를 만들어 문선공이 짠 틀에 활자를 맞추고 잉크를 묻혀 한장씩 찍어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북권에 대한 과몰입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 테스트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나눔로또는 서울에서는 운동주 시인의 ‘서시’를, 대전·충청권에서는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배포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맥 빠진 50분... ‘예총회관’ 뜨거운 감자

광주예총 회장 선거 최초 후보자 토론회

입관표 후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예정

제9대 광주예총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28일 광주시점자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예총 선거 사상 후보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광주문인협회 강만 회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로 등록한 최규철 현 광주예총 회장과 입관표 후보 광주예총 수석 부회장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4년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던 전임 회장들과 달리 최 후보는 3선에 도전한다. 임 후보는 장기 재임에 따른 독단적 운영 등을 언급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토론 안건은 ▲광주예총회관 운영 방안 ▲광주예총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예술 문화 현안과 광주예총의 역할 등 세가지 주제였다. 관심을 갖고 있는 6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여했지만 토론회는 50여분에 그친 맥이 빠진 분위기였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광주예총회관 문제다. 옛 서구청에 자리한 광주예총회관 건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정확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 후보는 오는 9월 이곳에 예술인창작센터가 오픈하면 광주예총과 각 협회는 임대료 부담을 안아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최 후보가 지금까지 추진단과의 소통에 실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후보는 예총회관이 아시아문화전당 산하 건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나섰다며 예총 회관을 지역 예술센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누가 회장으로 당선되든지 간에 광주예총회관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듯하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감사가 투표에 참여하는 문제 등 투표자 수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입관표 후보측은 30일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예총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임 후보측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선관위 위원장을 후보로 나선 현 회장이 지명하는 건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고 선관위 구성 전 대행 체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도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며 “정관상 회장에 지명권을 준 것은 지금까지 예총 회장이 모두 단임으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예총 선관위는 “법원에서 중지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일정을 원칙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광주예총회관에서 열리는 광주예총 정기회의에서 진행되며 모두 94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

1일째	선박 08:00 목포항집결 13:30 제주도착직원미팅 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리아트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중식 : 자유식 석식 : 호텔식
2일째	조식후-아침이 이쁜순일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레킹 석부적테마농원-감귤따가체험-중문포구~별내천천양대, 천연난대림지대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서커스월드or코끼리코스(현지직별) HOTER : 일반호텔(4~6인실)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3일째	선박 16:00 제주항도착 17:00 출발 항공 18:00 제주공항도착 19:35 출발	몽골리안 마상소(현지직별) 모험사냥 : 순박한마을체험-중식-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상선가도로 볼보행사장 : 온센(한지직별), 기사, 가이도(일 1인 ₩10,000원) * 제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선승객 1인 ₩20,000원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토종돼지 불고기정식 석식 : 자유식

*상기일정 은 현지상황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상품은주중제외됩니다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산악회 별도모의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무박2일, 1박2일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회원님들모십니다

무박2일

출발지 :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함사항 : 전용버스, 입장료, 숙박(숙박 4인실), 줄낙시, 식사(중식2회, 석식1회, 조식1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89,000원 주말(금, 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함사항 :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모텔 4인실), 줄낙시, 식사(중식2회, 석식1회, 조식1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169,000원 주말(금, 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의 H.P : 010-3999-3226

황제 산악회 매월 첫째주 화요일 07:30, 광주역 08:00, 문태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이시 : 양봉구 H.P 010-3999-3226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신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병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